

[H 갤러리]

DECEMBER COLLECTION

12. 1. – 12. 31.

PHILIP. HAN.

David Hockney(1937 ~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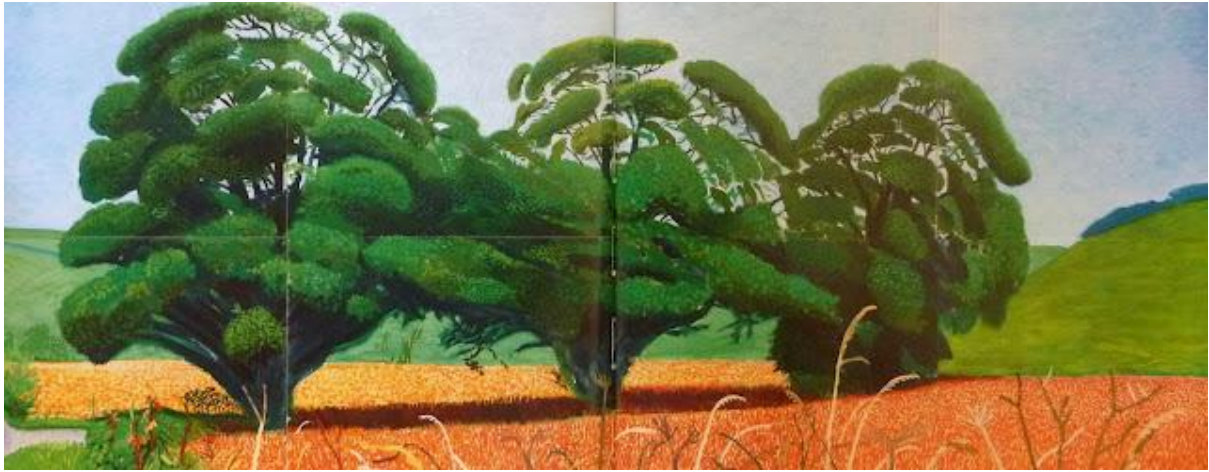
12. 7. 화.



Thixendale 세 나무. 구글 스트리트 뷰



Three Trees near Thixendale, Spring 2008 (oil on eight canvasses)



Three Trees near Thixendale, Summer 2007 (oil on eight canvasses)



Three Trees near Thixendale, Autumn 2008 (oil on eight canvasses)



Three Trees in Thixendale, Winter 2007 (oil on eight canvasses)

Eirene blog post



브리드링톤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킬햄까지 도로가 Woldgate 이다. 이번에 호크니는 동쪽으로 길을 잡았고, Thixendale 근처에서 세 그루 나무에 이르렀다.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듯 서 있는 모습이 호크니 시선을 사로잡았다.

2007년 · 2008년 두 해에 걸쳐 Three Trees in Thixendale 이라는 제목으로 사계절을 담았다. 흥미로운 점은 2007년은 여름과 겨울, 2008년은 봄과 가을이다. 마치 한 계절을 넉넉히 즐기면서 가장 그림다운 한 때를 기다린 듯싶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캔버스(91.44 x 162.56 cm) 8개를 붙여 완성한 대작이어서 한 계절을 족히 써야지만 했다. 실물 크기를 20배 축소한 이미지 사진에도 흥분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데 실제로 이 작품이 내 눈앞에 펼쳐 있다고 상상하면 EMP 충격파를 맞은 몸이 되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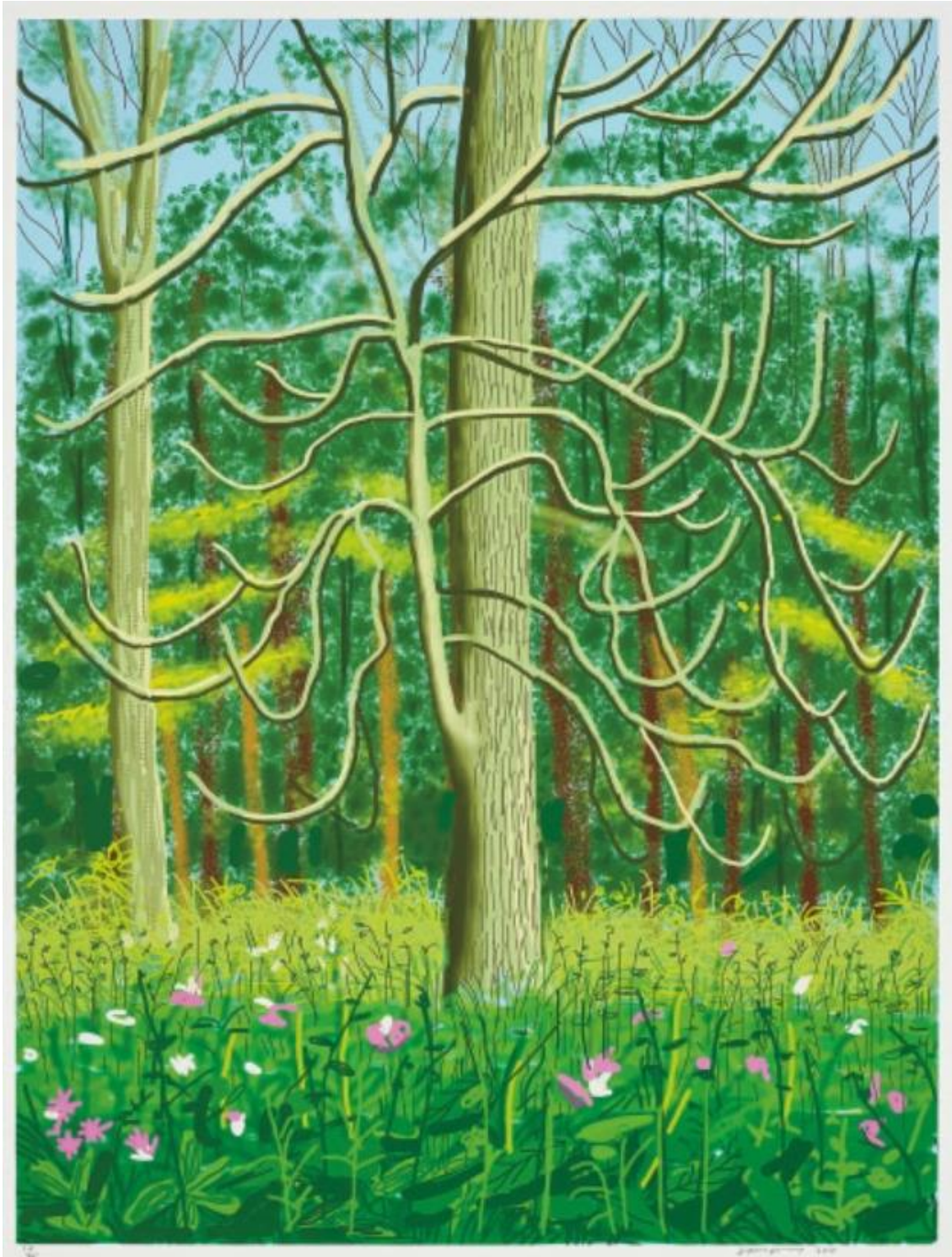
1900년 초 수련 연작은 캔버스에 갇힌 회화의 혁신을 이뤘다. 그로부터 100여 년 동안 누구도 수련 연작에 대적할 만한 작품은 없었다. 마침내

2011년 호크니가 관념에 사로잡힌 현대 회화를 캔버스 밖으로 끌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가디언 지는 이런 호크니의 패기에 감전된 신예 작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는 호평은 이 작품을 감상하는 포인트치곤 간지럽다.

이 작품이 남긴 회화 업적은 호크니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열심히 무언가를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은 호크니가 이 연작을 시작한 계기일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단순한 대작으로 기억되는 것을 경계한 말처럼 느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작품 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보고 싶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도 알고 싶다.

David Hockney(1937 ~ , 영국)

12. 19. 일.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4. May, 2011.

phillips.com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6. May, 2011
myartbroker.com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17. May, 2011
guyhepner.com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19. May, 2011
paintingandframe.com

데이비드 호크니는 2019년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이 폐쇄되자 호크니는 1년 여를 노르망디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1년 여 동안 결실이 2021년 영국 로열 아카데미에서 개최한 The Arrival Song of Normandy. 2021 이다.

노르망디 시리즈는 2011년 있었던 Woldagate 시리즈보다 원색을 단순하게 강렬하게 썼다. 자연과 풍경 두 소재는 동일했지만 볼드게이트 시리즈에서는 없었던 메시지가 있었다. '희망'이었다. 봉쇄 조치로 인한 답답함과 우울감이 어깨를 짓누를 때 드는 불안과 공포감을 떼 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maryryangallery.com 은 이에 대한 호크니 인터뷰를 전했다. 이른바 '지금 바로 예술을 할 때이다'라고 압축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며 자신을 추르리라는 듯 싶었다. 덧붙여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묻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호크니 이 말에 끌렸는가 보다. 한데 무엇인가를 묻고 생각하는 일이 노트북 화면 속 그림에서는 좀처럼 실감할 수 없었다. 온 세상이 갑자기 하얗게 변한 창 밖을 보는 일조차도 그랬다. 그러던 차 시선이 멈춘 작품이 볼드게이트 시리즈 5월 작품 여남은 개다.

2011년 5월 4일부터 19일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하니 작품이 보는 맛이 산다. 가로로 늘어놓고 보니 그날 그 밤 사람은 잠든 시간 자연은 기지개를 켜고 볼드게이트 길거리로 나와 마취 밴드를 만들어 행진하는 소리며, 밴드 공무니를 뒤쫓는 달빛 숨소리와 밤 이슬이 서로 부둥켜안고 밴드를 환영하는 환호 소리가 녹색녹색 하다.

보는 일은 그만하고 실제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호크니 말은 바로 이런 기운을 쌓아 두라는 말 같았다. 희망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만들어 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Epilog



Early Blossom Woldgate. 2009

세밑 날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다. 기쁜 일을 떠 올리며 입꼬리를 올렸다가도 서운한 일에는 이맛살을 찌푸려도 본다. 다행인 것은 세밑 한파 마냥 사나운 일은 없었다는 점이다.

2020년 11월부터 [H 갤러리] 매거진을 발행했다. 왜 시작했는지는 가뭇가뭇하다. 올해 1월과 2월을 뺀 이번 달 까지 총 12호까지 발행했다. 이렇게 쓰고 나니 어엿한 출판인이 된 듯도 하다. 기분이 꽤 참하다. 9월부터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Woldgate Series 로 도배를 했다. 이 일은

생각난다. 이 글에 얽은 Early Blossom Woldgate 작품이 데이비드 호크니 특별전을 4개월여 동안 있게 한 장본인이다.

작품 속과 비슷한 풍광과 길이 내 근처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여기저기 좀 다녔고, 마침내 찾은 곳이 청류재 길이다. 김유신 시인이 운영하는 문학관이고 카페이며 식물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청류재는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너른 논이었고, 논을 둘러싼 독길이였다.

그 논독길에서 한 곳에 모아진 소실점에는 이 작품 속 구름이 일부러 거품을 뭉게뭉게 낸 양 똑같았다. 하지만 청류재 Blossom은 아직 못 봤다. 황금 들판이었다가 땡감이 붉게 홍시로 익는 늦가을 소리는 듣고 보았지만 아지랑이 봄꽃이 화창한 모습은 겨우 내 상상으로 만끽해야 할 일이 되었다.

아마 호크니도 나와 같은 상상으로 볼드게이트 겨울을 지내며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봄맞이 준비를 했을 것이다. 볼드게이트 시리즈를 성원해 주신 [H 갤러리] 독자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으면서 말이다.

2021년 신축년 한 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성원 해 주신 작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 뜻한 바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